

[종합·해설]

“이명박 당선자 입맛에 맞춰라”

재정부 등 정부 정책 ‘李 코드 맞추기’로 서서히 선화

출총제 폐지·중부세 완화 등 검토...기존 입장에서 후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이 당선자의 공약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온 정부 부처들이 조금씩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나 종합부동산세 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온 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태도를 바꾼 이 당선자의 코드에 맞춰보거나, 혹은 자기 부처의 정책과 이 당선자의 공약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 원래 이 당선자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태도를 돌변하는 것도 이 당선자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모양만 우스워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정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소신’을 보이는 공무원은 없는 실정이다.

▲“달라진 것은 없으나 검토는 한다”=재정경제부는 이 당선자 측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검토

하하겠다고 밝힌 이후 2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부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 중부세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리즈로 글을 실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자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출총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출총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금만 손질하면 된다-거의 비슷하다”=재정부는 이 당선자의 산업은행 민영화 공약과 기존에 재정부와 갖고 있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방안을 공약에 맞춰 손질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도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민간 중심의 협력을 강조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어 재정부는 단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기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정책도 부분적인 손질 불가피=농림부는 농업정책들이 부동산이나 세제, 기업규제 관련 정책 등 타 부처의 현안들에 비해 사정이 훨씬 낫다며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농가부채종합법 제정을 통해 농업인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 경작은 계속하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분할 상환토록한다’는 공약은 농림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 공약은 정책 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 및 이자 동결의 대상과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조금씩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6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경숙 위원장과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친노는 폐족...엎드려 용서 구해야”

안희정씨 “변화·개혁 실패” 반성 촉구

“친노(親盧)라고 표현돼 온 우리는 폐족(廢族)입니다.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실컷 울 여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이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자신을 포함해 친노 세력을 ‘폐족(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집권 10년의 역사를 지키지 못한 것, 거대 집권 여당 세력을 단결된 세력으로 바꾸고 지키지 못한 것,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실패했느냐고 항변하



며 싸움을 독려했지만 민주개혁 세력이라 칭해져 온 우리 세력이 사실상 사분오열 지리멸렬의 결말을 보게 됐으니 어찌 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권력자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한류 정경이 부패세력이 되고 모든 집권여당이 부패한 정치자금으로 집권정당 세력의 통치력을 확보하던 그 시절을 마감시켰고, 최선의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노력이 국민과 우리 세력 다수의 합의와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정책을 바꿀 수 없었다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야 했지만 우리는 변화와 개혁에 실패했다”고 썼다.

昌 보수신당 ‘창당기획단’ 발족

단장에 감삼재씨 내정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추진해 온 보수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기구인 ‘3인 회의’와 국민중심당 관계자 및 이들을 도울 실무진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창당기획단 실무실은 대선 기간 선거사무소가 있던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 9층에 마련됐다.

“3인 회의”는 전날까지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창당 취지문 ▲정강·정책 ▲당헌·당규 등의 밑그림을 대체로 마무리짓고 이를 이회창 전 총재에게 보고했으며, 현재는 이 전 총재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또 강 전 총재와 허성우

전 정부팀장, 국민중심당 이응재 전 전략기획실장으로 구성된 ‘3인 회의’와 국민중심당 관계자 및 이들을 도울 실무진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창당기획단 실무실은 대선 기간 선거사무소가 있던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 9층에 마련됐다.

“3인 회의”는 전날까지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창당 취지문 ▲정강·정책 ▲당헌·당규 등의 밑그림을 대체로 마무리짓고 이를 이회창 전 총재에게 보고했으며, 현재는 이 전 총재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또 강 전 총재와 허성우

민노 지도부 총사퇴

민주노동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성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오는 29일 중앙위원회의에서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대선 이후 당 내외를 추스르고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소망교회, 이명박 인재풀 부상하나

후 당선자 장로...이경숙 인수위원장도 권사 맡아

정몽준·박태준·이효계씨 등 정·재계 인사 다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다니는 소망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 당선자는 시무장로로, 김윤옥 여사는 권사를 맡고 있다. 또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이 교회 권사고 이 당선자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도 은퇴 장로다.

이 밖에 이번 대선에서 이 당선자 지지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에 합류한 정몽준 의원, 이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이자 인수위 경제 1팀 간사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과 박승준 고려대 교수도 이 교회에 다닌다.

부시 미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했던 강영우 미 백악관 차관보 역

도 했다.

소망교회는 12월27일 오후 7시 30분 이명박 장로 대통령 당선 감사예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계속 소망교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5일 성탄절 예배에도 이 당선자는 소망교회에 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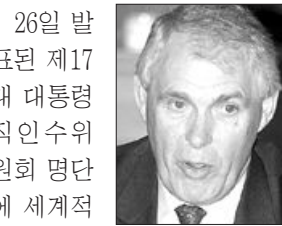
이 당선자와 소망교회의 이 같은 인연 때문에 교회 라인을 통해 당선자 측에 출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장로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가 오래 출석했던 총현교회 인맥이 급부상한 바 있다.

북풍 파동으로 구속되면서 자해 소동까지 일으킨 바 있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부인이 출석교회를 총현교회로 옮겨 김 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인수위 이색인물

英 금융전문가 엘든씨



26일 발표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에 세계적인 유망한 외국인 금융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데이비드 엘든(62)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

그는 ‘이명박 인수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에 전격 발탁됐다. 벽안의 외국인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역점사업을 다룰 특설기구의 공동수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인인 엘든 회장은 평생을 국제금융계에서 보낸 ‘국제금융맨’으로 통한다.

= 합격률 전국 1위 = **오전반 야간반**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개강 1월 2일 ■ 현대적 학습시설 ■ 과학적 평가 시스템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현재상담접수중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여고 건너편

= 전국 유일의 실강의 =

농산물 품질관리사 2차 실기반

개강 12월 22일 ■ 실습으로 인한 실기대비

■ 모의고사 실시 ■ 필답형 완전정복

주말반(토·일 강의)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여고 건너편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협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겨울방학 대 특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검출직, 불리화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2일 주·야 (총화)반모집 (합계 2주)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www.kjkimyo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전대 졸업(예정)자 4학년 대학 2학년인 미취업,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